

# 옥수수 시세는 약세이나 대두시세는 계속 안정세

〈한국사료협회 기획조사부〉

## ■ 미산 원월도 옥수수 하락

금년도 미국산 옥수수의 신곡파종이 거의 종결되어 가면서 금년도 신곡기준 원월도 옥수수시세는 크게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6월20일 현재 시카고 곡물시장의 옥수수가격추이를 보면 7월도의 경우 부셸당 2.3475불인데 반해, 9월도는 1.9725불, 12월도는 1.8975불로 원월도로 갈수록 낮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이때문에 최근 월도 수입가격은 현재 C&F 가격기준으로 톤당 115불선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8월과 9월선적분은 110불, 10월11월은 100불선에서 각각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

이와 같은 미산 옥수수시세의 하락현상은 미국 콘벨트지역의 순조로운 옥수수 생육조건과 옥수수 수출부진 등에 기인하고 있다. 미국 콘벨트지역의 식부작업은 지난 6월 1일 현재 94%가 완료되어 지난해의 98%에 비하면 다소 뒤지고 있으나 과거 5개년 평균치인 89%에 비하면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다. 콘벨트지역중 조지아, 일리노이, 노오스 캐롤라이나, 텍사스지역은 이미 완료된 상태이고, 미네소타, 사우스타코타지역은 식부작업이 가장 늦어지고 있다. 이미 식부가 완료된 옥수수의 생육상태는 기후조건 호조로 인해 일부 조지아, 노오스 캐롤라이나를 제외한 전지역이 좋은 생육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월10일 발표된 미농무성 작황보고서에 따르면 금년도 미산 옥수수의 생산량은 사상 유례없는 대풍작을 기록했던 지난해의 2억 2,518만톤에 비해 14.5%가 감소한 1억 9,242만톤에 달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금년도 기초재고량이 지난해에 비해 두배 이상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금년도 미산 옥수수의 총공급물량은 2억 9,115만톤으로 지난해의 2억 6,712만톤에 비해 9% 늘어날 전망이다. 가격수준도 지난해의 USDA추정치인 부셸당 2불 35센트에서 크게 떨어진 1.80~2.05로 전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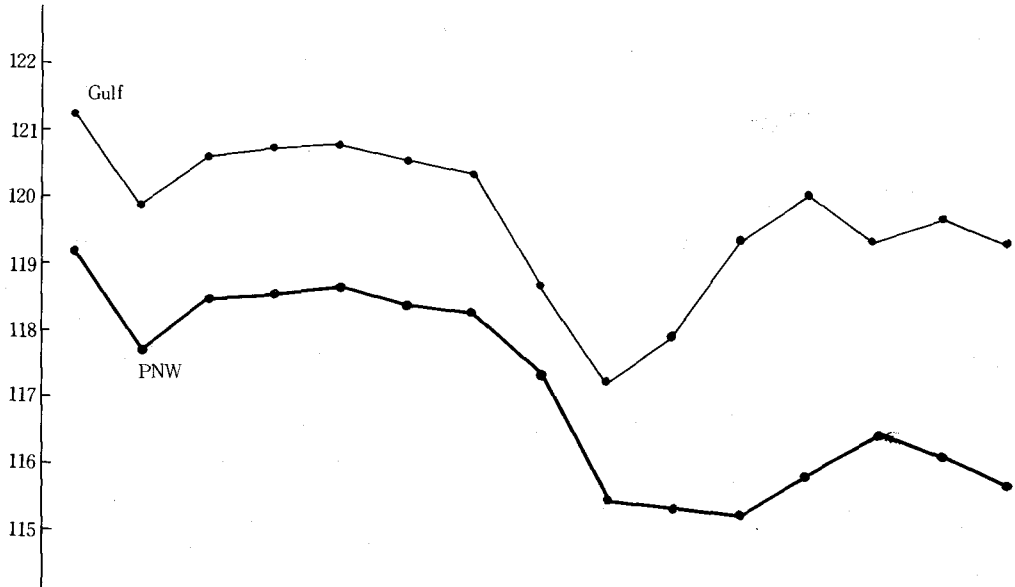
## ■ 태국산 옥수수시세 급락

미산 옥수수의 원월도시세 하락에 영향을 받은 태국산 옥수수 역시 신곡수확기를 앞두고 크게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강우부족 등으로 인해 옥수수생산량은 다소 감소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행히 최근의 강우로 인해 해갈이 해소되기는 했으나 6월 5일까지만 해도 일부지역에선 강우부족으로 옥수수에 대한 큰 피해가 예상되기도 했다.

이때문에 금년도 태국산 옥수수의 생산량은 지난달 510만톤으로 추정, 발표하였으나 USDA는 다시 6월10일 480만톤으로 하향조정할 바 있다.

# 1. 옥수수 시세동향

단위 : US\$/MT



(6) 월	2	3	4	5	6	9	10	11	12	13	16	17	18	19	20
P N W	119.22	117.84	118.43	118.53	118.63	118.43	118.23	117.35	115.48	115.38	115.28	115.87	116.46	116.07	115.58
Gulf	121.34	119.96	120.55	120.65	120.75	120.55	120.35	118.68	117.20	117.89	119.37	119.96	119.37	119.76	119.27

지난해 태국은 사상 유례없는 대풍작을 기록하여 평년작인 480만톤수준을 크게 넘어선 520만톤을 기록한 바 있다.

이와같이 생산량이 다소 감소될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구곡 및 신곡시세는 계속 하락세를 나타내 한때 110불선 가까이 급등했던 태국산 옥수수시세가 C&F, 톤당 90불선으로 크게 떨어졌고, 최근에는 90불선마저 깨어지면서 C&F 톤당 88~89불선에서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 이와같은 태국산 옥수수의 급락현상은 7~8월에 있어서 전통적인 태국산 옥수수의 수확압력(harvest pressure)으로 인한 하락요인과 최근 미산 옥수수의 원월도시세하락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태국내 Exporter들이 수확기에 닥아가면서 재고로 가지고 있던 구곡 옥수수를 처분하는데 따라 시세하락이 가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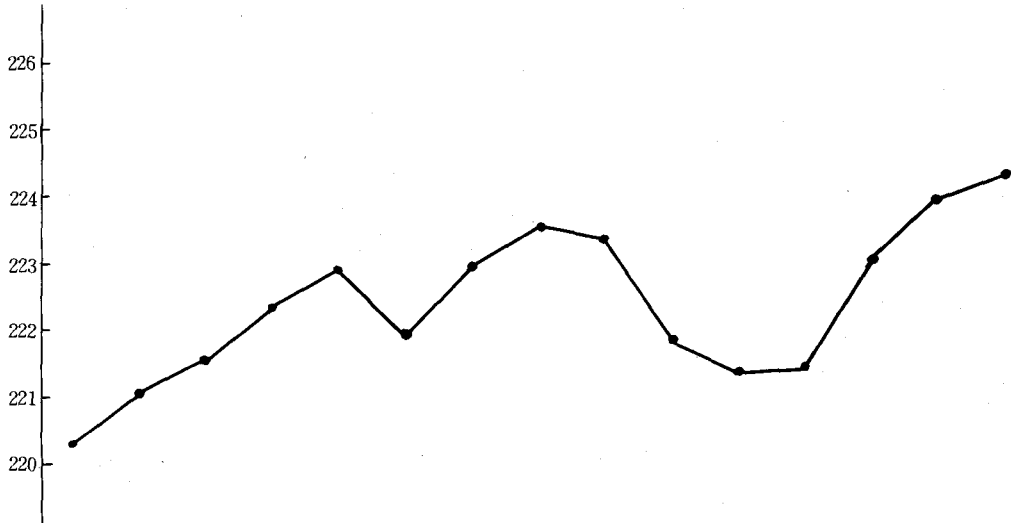
태국산·옥수수의 가격하락으로 인해 전반적인 타국 옥수수시세도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즉 6월 23일 현재 중공산 옥수수시세는 지난 5월의 C&F가격기준, 톤당 108불에서 8불가까이 하락된 100불수준에서 시세가 형성되고 있고, 아르헨티나 옥수수 역시 체르노벨 원자력발전소 사태 이후 113불선까지 올랐으나 최근에는 다시 106불대에서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

## ■ 사료용소맥시세 크게 하락

1983년 이래 사료용으로 수입 이용되고 있는 사료용 소맥의 수입물량은 1983년에 약 7만톤 가량이 수입된 이래, 1984년에는 약 80만톤, 지난 85년에는 100만톤으로 크게 신장되었고 금년에도 사료용 소맥수입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2. 대두 시세동향

단위 : US\$/MT



(6) 월	2	3	4	5	6	9	10	11	12	13	16	17	18	19	20
C&F 가격	220.38	221.02	221.57	222.46	222.95	221.94	222.95	223.50	223.41	221.85	221.48	221.75	223.04	223.96	224.23

현재 사료용소맥은 한국과 필리핀 등에서만이 사료용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중 한국이 가장 큰 구매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85년 현재 사료용소맥의 주요 수출국은 호주, 캐나다, EC로 삼파전이 이루어 지고 있고 수출가격은 금년 1월 C&F가격기준으로 톤당 118불대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지속되는 하락세로 인해 88불 까지 크게 떨어졌다. 이와 같은 큰폭의 가격하락은 그동안 가격균형을 이루어오던 호주와 캐나다의 사료용소맥시장에 EC가 개입되면서 소맥전쟁이라 불릴만큼 치열한 가격경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한국의 소맥시장에 있어서 일본 종합상사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캐나다의 사료용소맥의 경우 일본의 니쇼와이가 콘티넨탈, 카길, UGG 등을 제치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미쓰이, 미쓰비시 등도 호주의 사료용 소맥에 대해 관심을 높여나가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종합상사들이 사료용 소맥에 대해 관심을 높여나가고 있는 것은 최근 엔화강세로 인해 일본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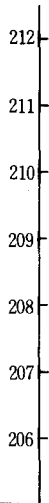
합상사들의 수입경쟁력이 크게 향상되었기 때문이며, 특히 앞으로는 엔화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하에 10ng term베이스의 장기계약을 늘려나가고 있다. 현재 사료용 소맥이 사료적 가치면에서 옥수수에 비해 뒤지지 않으면서도 가격이 옥수수나 수수에 비해 유리했던 것은 수입국이 한국과 필리핀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은 식관법에 묶여 소맥의 사료적 이용이 어려우나, 향후 일본의 사료공장에서 사료용 소맥사용이 가능해질 때 앞으로 값싼 구매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 대두시세 안정세 지속

전반적으로 옥수수, 소맥 등 곡류시세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반해 대두 및 대두박 시세는 상대적으로 강세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두박의 경우 대두수요의 정체현상으로 인해 대두박 공급이 제한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으며, 대두 역시, 옥수수나 타곡류에 비해 세계적인 생산

### 3. 대두박 시세동향

단위 : US\$/MT



(6) 월	2	3	4	5	6	9	10	11	12	13	16	17	18	19	20
C&F 가격	207.65	207.32	207.10	208.97	209.20	207.87	208.42	210.19	210.30	208.97	207.87	207.87	208.86	208.42	208.53

두 생산량이 1,820만톤이었던데 반해, 85/86 년도 생산량은 1,300만톤으로 약 28.6%나 감소하였다. 또한 금년도 미국의 대두 생산량은 USD-A 추정치에 따르면 5,171만톤으로 작년도 5,712만톤에 비해 9.5%가량 감소될 전망이다이며, 6월 15일 현재 미산 대두식부진전상황은 전미국평균량이 크게 늘지 않았고, 미국의 수출경쟁대상국

인 브라질의 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즉 지난 84/85년의 브라질의 대 81%로 85년 동기 88%에 비해 다소 뒤지고 있으나 과거 평균치인 80%에 비해서는 양호한 상태이다. 이때문에 미농무성은 금년도 미국산 대두시세가 부셸당 4.75~5.15불로 지난 해의 5.1불수준에 비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효율적인 양계산업 운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자**

대한양계협회